

경제

Biz & Economy

9 광주일보

제17627호 2006년 12월 14일 목요일

주가	환율	금리
+6.30 1,383.28 (코스피지수)	+0.10 922.50원 (원/달러)	보합 4.76%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98.35	(+0.89)
다우(12월)	12,315.58	(-12.90)
나스닥(12월)	2,431.60	(-11.26)
닛케이	16,692.93	(+55.15)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09엔	(+0.12)
유로 달러 환율	1.3283달러	(-0.20)
3년만기 회사채	5.12%	(보합)
블룸리	4.46%	(+0.01)

내년부터 포장안된 배추·무 전국 공영도매시장서 '퇴출'

내년부터 포장되지 않은 배추와 무는 광주시 각화동 원예농협을 비롯한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찾을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해 비포장 배추 및 무의 반입을 금지하는 '배추·무 포장유통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10월 수도권 공영 도매시장 8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하게 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지에서 생산자는 도매시장에서 따로 손을 대지 않고 판매가 가능한 정도로 다듬어 농산물표준규격이 적용된 그물망, 골판지 및 플라스틱 상자 등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또 공영 도매시장 안에서 배추나 무를 재선별, 재포장하는 작업은 금지된다. 도매시장의 재처리 과정을 없애 유통비용과 쓰레기를 동시에 줄이고 생산자 출하단계의 '덤' 관행도 줄여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취지다. 정부는 배추·무 포장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장재별로 ▲그물망 90%(117원) ▲골판지상자 60%(480원) ▲플라스틱상자 80%(384원) 등의 차등비율을 적용,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2011년에는 배추와 무 이외의 일반 품목의 포장재비 지원수준이 3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13일 조선대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닭과 오리고기 요리를 먹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주최로 조선대병원 구내식당에서 열린 이날 시식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닭·오리 고기를 섭씨 75℃에서 5분간 익혀 먹을 경우 안전하다"고 말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세번째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닭고기값 다시 하락

전북 김제에서 세번째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이 확인된 뒤 닭고기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 13일 농협전남지역본부와 계육협회 등에 따르면 닭고기 산지가격은 지난 8일 1kg당 806원에서 세번째 고병원성 AI 발병 사실이 발표된 11일에는 781원으로 떨어졌다. 광주지역 할인점에서도 생닭 1kg이 지난 주에 비해 500원 가량 떨어졌고, 매출도 15~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가격도 6일 750원(10개)에서 8일과 11일 각각 733원, 730원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패션 미니스커트·레깅스 참살이 와인·올리브유 주5일제 등산용품

불황에도 통했다

■광주 유통가 올 히트상품 트렌드

‘와인·슬립화·꽃미남 전성시대·소확제 신드롬·아웃도어 용품·참살이·명품’ 올해 광주지역 유통업계를 지배한 트렌드를 7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것이다.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들 7개 키워드로 대변되는 상품들이 올해 광주지역 유통업계를 주름잡았다는 것. 우선 와인열풍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양주매출의 절반수준이던 와인 판매량이 올해 처음으로 양주 판매량을 넘어섰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와인이 양주 매출의 10%를 넘어서면서 개점 11년만에 최고 매출을 기록해 자체 ‘기네스’를 달성했다. 꽃미남 전성시대를 맞아 남성용 화장품 판매 증가율이 40%를 넘어섰고 한방화장품도 50%이상 매출이 늘었다. 아웃도어 용품 시장에서 출산율 저하로 ‘소확제(小皇帝) 신드롬’이 일어 구매고객은 20% 줄었지만 1인당 객단가(구매액)는 21% 늘는 등 고급화·명품화 추세를 보였다. 명품의 대중화와 소비 양극화현상으로 인해 명품 매출이 40%가량 증가한 가운데 가전매장에선 42인치 TV와 양문형 냉장고 등 크고 고급스런 제품이 히트를 쳤다. 7월부터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패션잡화와 기능성을 갖춘 아웃도어 용품이 날개 돋힌듯 팔려 나갔다. 아웃도어 용품이 스포츠 매장의 트레이닝복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는 매출이 125%까지 폭증했다. 광주신세계 김기봉 마케팅팀장은 “올해 유통업계 화두는 단연 참살이와 양극화였다”며 “내년에도 ‘황금돼지해’를 이용한 다양한 마케팅의 영향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환경기술 대상’ 행남자기 최우수

행남자기(대표이사 노희용)가 12일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웰빙 식기 개발에 주력해 신환경기술대상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호르몬 및 중금속 검출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다. 행남자기는 본차이나 및 일반 도자기 제품에 대해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위생·안전인증(HS마크)도 획득,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행남자기는 내년도도 연구개발(R&D)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20% 늘려 친환경 소재 식기 개발에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목포=이성진기자 sslse@

한가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 연말연시 모임
- 탄전제
- 직장 세무/회계 상담
- 불판치
- 고회연

12월을 자랑은행

VIP전문 PROPOSE

대한민국 최대의 국내·국제결혼 전문회사

전문직종사자, 기업근로자, 농·어민, 공무원 등

- 국내결혼: 초혼, 재혼, 살버른, 커뮤넷개행사, 매달정행
- 국제결혼: 인바시스템, 과민, 베트남, 중국, 몽골 등

(주)웨딩스쿨

한반반을 위한 기발 / 젊은기발사 - 센스모

맛춤가발입니다!

SenS-Mo

062-576-3545
062-332-3545